

가슴 울리는 부처님 법음...천막 안 스님들 들리시죠?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1월10일 경기도 하남 감이산 산자락 위례 상월선원 야외 앞마당에 아름다운 음성공양의 향연이 펼쳐졌다. 우리사회 화합과 평화-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9명 스님들의 동안거 천막결사가 두 달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천막의 사찰 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여 상월합창제를 열었다.

이날 공연은 '부처님의 법음 상월을 올리다'를 주제로 10여 개 사찰 합창단이 특설무대에 올라 그동안 화음을 맞춰온 곡들을 선보이며, 천막 정진 스님들에게 음성공양을 올렸다. 서울 조계사, 봉은사, 수곡사, 국제선센터, 중앙합창단, 남양주 봉선사, 성남 봉곡사, 봉화 청량사, 연주암, 의왕 청계사 합창단원들은 고운 단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제각기 기량을 뽐냈다.

맑고 정당한 목소리는 추위마저 잊게 하는 따뜻한 자리로 꾸며졌다. 공연을 보러온 관객들도 한국 한국 끝날 때마다



위례 상월선원 '합창축제' 전국 사찰합창단 한자리에 음성공양 올리며 환희심...



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장장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공연은 전체 합창단과 관객석의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우리도 부처님 같이'와 '부처님오신날'을 합창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지휘 아래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겠다는 굳은 원력으로 정진하는 스님들을 응원했다. 공연이 이어지는 동안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스님과 포교원장 지홍스님도 현장을 찾아 동안거 원만회향을 발원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무대에 오른 총도감 해일스님은 최근 있었던 상월선원의 긴급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총도감 스님은 “최근 새벽 응급상황이 발생해 의료진이 급히 출동했다. 다행히 (의료진) 오는 사이 (스님) 의식이 돌아왔다”며 “추위와 싸우며 정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며 상월선원에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공연에 함께한 합창단



1월10일 위례 상월선원 앞 야외무대에서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합창단이 함께 '우리도 부처님같이'를 합창하고 있다. 아래 관객석에서도 이 노래를 함께 열창하며 9명 결제대중 스님들을 힘차게 응원했다. 아래 작은 사진은 합창제에 함께한 불자들이 행사가 끝난 직후, “스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는 모습.

원들은 이 자리에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지 환희심을 감추지 못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줄도 모르고 노래했어요. 스님들의 목소리 건진은 밖에 있는 모든 불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어요. 거룩한 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듯해요. (전해준 봉화 청량사 동근소리합창단원).” “한국불교를 위해 정말 애쓰고 계셔서 매주 한번 응원하는 마음으로 달려옵니다. 건강 해지시고 열심히 하셔서 우리 불교가 다시 한 번 활기를 띠길 기원

합니다. 합창의 목소리가 스님들에게 잘 전달돼, 마지막까지 흐트러짐 없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양숙희 봉은사 연화합창단원).” “제대로 찌지도 드시지도 못하고 계신데, 100일 동안 하신다니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면 합니다 (이해란 봉선사 연꽃미소합창단원).” 같은 시간 천막 법당에서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임직원들과 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의 대중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다. 이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매년 새해 개최하는 불교

사회복지 정진대회를 상월선원에서 열고, 9명 스님들의 정진에 힘을 보태고 율한해도 힘찬 자비행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상임이사 보인스님은 새해덕담을 통해 “불퇴전 용기와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과 자기 몸을 던져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결국 진리를 향한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율한해도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으로 맑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 여러분의 자비행이 우리 사회를 밝힌다”고 격려했다. 시설협의회장 법일스님도 “작은 물방

울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듯 여러분이 행복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온 세상이 행복할 수 있다”며 “정진 기도와 작은 인연이 모여 모든 사람이 행복한 큰 인연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탄웅스님은 개회사에서 “아름 분 원력과 결연한 의지는 불교사회복지와 무관하다 할 수 없다”며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 올바른 불제자가 되고자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고자 하는 의지는 불교사회복지의 중요한 근간이다”고 강조했다. 하남=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이경우 법사의

‘청년을 위한 불교기초강의’ (47)

Q 부모님이 다니시는 절의 스님이 나의 사주에 대해 언급하셨다고 하는데, 불교와 사주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A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불교와 사주명리학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란 사람이 태어난 년, 월, 일, 시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사람의 미래운명은

그가 태어난 연월일시나 성별, 그리고 가문 등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이 지금까지 지어 온 까르마(업)가 좌우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석가모니부처님은 명확히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론을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존우화작인론(尊祐化作因論)’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인간을 초월한 절대 신의 의지

사주팔자 숙명론일 뿐 불교와 전혀 관계 없어

로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당시의 브라만교에서 인간의 의지와 무한한 가능성을 일체 무시한 주장으로 부처님은 단호하게 이것은 그릇된 주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일명 ‘숙작인론(宿作因論)’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불교와 사주팔자는 어떤 관계일까?

숙명론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은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숙명론도 잘못됐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무인무연론(無因無緣論)’이라는 주장으로 ‘모든 것은 그저 우연히 생긴 것뿐’이라는 이론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나니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론 모두를 부처님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자기 운명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나가

는 것인데, 위의 주장들은 인간을 그 이론으로 얽매어 노예로 만들거나 무책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주는 위 세 가지 잘못된 주장 중에 두 번째 부류인 숙명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틀렸다고 하여 물리친 것이니 불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사주팔자의 시작은 옛날 중국에서 왕들이 자신을 천자(하늘의 아들)라 하여 대대로 왕위를 세습하다,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 곳곳에 천자라는 사람들이 창궐하게 되니 그들의 주장이 무색해지자 새로이 들고 나온 것이 자기들은 왕이 될 사주를 타고났다는 사주학으로 백성들을 우민화한

교육지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가 주로 중국을 통하여 전래되었고 한문권 영향에 있었다보니 중국의 유교와 도교, 역학, 음양오행설 등이 불교의 전생윤회사상과 뒤섞여 독특한 형태의 문화가 형성되어, 일부 스님들이 이러한 사주명리학을 현대의 심리 검사처럼 상담의 도구, 포교의 방편으로 차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처님은 계율에서 수행자는 다른 사람들의 점을 봐주는 일은 일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명확히 하셨습니다. 인본주의인 불교의 근본교리와 분명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군법사·육군대령

파키스탄 성지순례

1) 파키스탄 불상의 탄생지 간다라, 최장수 마을 훈자 10일

출발일 : 2020년 3월 10일 ~ 19일 (10일간) 동참금 : 문의
인천 - 라호르(부처님 고행상) - 이슬라마바드 - 탁실라 불교유적지 - 페샤와르 - 스와트계곡 불교유적지 - 길기트 - 훈자 - 카라코람하이웨이 - 파미르고원 - 카슈가르 - 쿠차 - 우루무치 - 인천

2)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파키스탄 간다라 불교유적지 - 훈자 - 쿠차 등 순례 13일

출발일 : 2020년 5월 26일 ~ 6월 7일 (13일간) 동참금 : 문의
인천 - 라호르(부처님 고행상) - 이슬라마바드 - 길기트 - 훈자 - 스와트계곡 불교유적지 - 페샤와르 - 탁실라 불교유적지 - 이슬라마바드 - 인천



중국 실크로드 돈황순례 10일

서안에서 돈황석굴우루무치까지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정통 실크로드 순례 코스

출발일 : 2020년 5월 11일 ~ 20일 (10일간) 동참금 : 259만원

인천 - 서안 - 법문사 - 천수 맥적산 - 무산 수렴동 - 난주 병령사석굴 - 장악 대불사 - 칠채산 - 사육관 장성 - 돈황석굴 - 투루판 - 우루무치 - 인천



남프랑스 문화탐방 12일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로 손꼽히는 남프랑스 힐링여행

출발일 : 2020년 5월 7일 ~ 18일 (12일간) 동참금 : 430만원

인천 - 파리 - 니스 - 모나코 - 액상프로방스 - 고흐드 - 아비뇽 - 몽뮈가르 - 아를 - 카르카손 - 톨루즈 등

남프랑스의 아름다운 마을과 자연들을 여유롭게 돌아보는 최상의 여행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maumtour.com

부탄 성지순례 7일

출발일 : 2020년 6월 11일 ~ 17일 (7일간)

동참금 : 문의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출발일 : 2020년 6월 3일 ~ 18일 (16일간)

동참금 : 문의

